구역예배 말씀

〈2025년 6월 8일(주일)〉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1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 찬송 : 516장(새찬송가 427장), 204장(새찬송가 288장)

공과내용

현대인들의 행복관을 살펴보면 대체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현세적인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달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와 정비례하여 근심도 늘어갈 따름입니다. 마치 바닷물은 들이킬수록 갈증만 더 심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은 결코 참된 행복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복이란 외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복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차례로 공부함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덟 가지 복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복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팔복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의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기준을 설파하시면서 복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헬라어로 ‘프토코스’인데, 이 말은 극도로 궁핍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조차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물질적인 가난을 복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늘 허기진 채로 먹을 것을 갈망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의(義)로써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편, 심령이 부요한 자란 그 심령이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눅 6:24)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 3:17)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만족과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심령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동경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성격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룩한 성도들이라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그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라면 성령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찬송시 작가였던 화니 크로스비(1820-1915)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처한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어 늘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신 것은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만족을 부추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 안에서 소유한 행복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